

한국 대표 문인 '고은' 재조명 시작됐다

11일 고은학회 창립, 생가서는 10월 중 제1회 문화축제 예정

한국문단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은 시인(사진)을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고은학회창립준비위는 9월 11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고은학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한원균 한국교통대 교수를 선출한데 이어 '고은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인문학 심포지엄은 고은의 시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원로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의 '고은과 인문학' 기조강연에 이어 초대회장에 선출된 한원균 교수가 '고은학의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또 김수복 단국대 교수, 김형수 문학평론가, 오윤정 서강대 교수 등이 고은 연구의 방향을 가능하는 내용의 발표를 맡았다.

이날 염무웅 선생은 기조강연을 통해 "고은 시인은 다작의 문인으로 고은학회의 첫 작업은 이런 기초자료를 모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염 선생은 "고은의 시는 정체불명의 성채에 접근하는 느낌이나 신나의 거대한 산맥과 같다. 고은학회가 산맥을 보듯 고은의 문학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바로 보고 연구해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에는 강연호, 박효환, 김수복, 김완



하, 안도현 등 시인과 평론가, 국문학자 등과 외국인 교수,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교수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원균 교수는 학회 출범에 대해 "1958년 등단해 57년 동안 문학 활동을 해 온 고은 시인은 한국 문단을 넘어 세계문학의 자리에서 주목 받는 이로 국내외 문학계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범문화적 관점에서 고은 시인의 문학을 심도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국제학술회의를 두 차례 열 계획"이라며 "가칭 '고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문화콘텐츠 사업도 진행



9월 11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열린 창립총회 모습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평가의 장을 학문적 관점에서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은 시인의 생가가 있는 '연치를 뒤란에 두고 나왔다'며 "넷기의 돌맹이가 되어 물에 씻기고 또 씻기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고은 시인은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한국의 국민시인으로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정진하던 중 1958년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15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을 연재했으며 창간 논설위원도 지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장 열린다

한일불교문화학회, 10월 2일 동국대서 세미나 개최

'일본불교의 전쟁범죄와 동국사' 이치노헤 스님 '조동종 참회' 발표 한일근대사 1만 점 소개도 이어져

광복 70년을 맞아 일본불교계의 일제강점기 침탈 통치의 역사를 살피고 과거사 반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일 '일본불교의 전쟁범죄와 동국사'를 주제로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동국사 후원으로 주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만여 점에 가까운 한일 근대사 자료를 소장한 종결스님이 '일제시기 자료목록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어 △김두현 군산 중앙교 교사의 '일제강점기 군산 금강사의 창립',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타카하시 치쿠메이를 통해 본 조동종의 전쟁' △김성순 금강대 교수의 '제국주의 전쟁과 우물가의 여인들' △니이조 카즈노부 나고야 대국교 교수의 '진종대국교의 해외 개교와 천황배방안의 의미' 등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영상 한일불교문화학회장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양심파의 만남의 자리"라며 "불교의 역사적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063)462-5366 노덕현 기자

"간화선 심리 치료 연구 개발해야"

이필원 교수, <인도철학> 44집서 연구논문 분석 토대 주장

한국불교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원 동국대 교수는 <인도철학> 44집에 실린 '간화선과 심리치료'에서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간화선과 심리치료' 논문에서 선심리치료의 영역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간화선 관련 논문을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은 연평균 1편이 되지 않지만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에는 매년 15.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관련 논문은 198편에 달하지만 이중 치료효과나 체험에 대한 분석논문은 6편에 불과한 것이다. 192편이 특정인물의 사상 규명에 그쳤다.

이 교수는 "6편 중에서도 실제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며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에 대한 논문은 국외 경우

더욱 드물어 1979년 존 카밧친 박사의 MBSR프로그램 개발 이후 불교명상 심리치료 연구는 남방 유포사나 수행 일본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의 간화선 연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간화선이 갖는 내적 한계 때문"이라며 "화두 타파한 승승 없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이며 일대일로 화두를 점검해 줘야 하기에 대중적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히며 이런 점을 국내 선형 연구에서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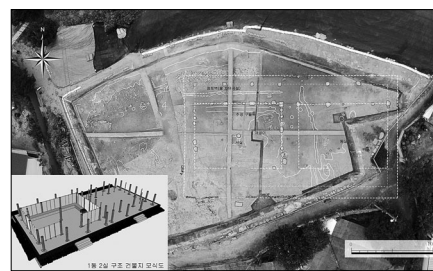
이 교수는 "간화선의 치료효과를 다른 논문에서 짜증과 분노가 줄어 드는 등의 효과가 도출됐다. 간화선 화두가 분별을 끊고,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감정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간화선을 발전시킨다면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 부여 나루터에서 백제사찰 건물지 확인

부여군(군수 이용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만)은 9월 17일 4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유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여 구드래 일원은 부소산 서쪽 백마강 나루터 일대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여 부소산성, 나성 등을 포함하는 백제 사비도성의 나루다.



구드래 일원 현장 항공 사진

이번 발굴조사 결과, 1동 2실 구조의 초석 건물지, 도로 등의 백제 유구가 확인됐다. 또한 연화문 수막새, 명문와(銘文瓦, 글자가 새겨진 기와), 귀면와(鬼面瓦, 도깨비 얼굴이 장식된 기와), 토제전(土製罐, 흙으로 만든 벽돌), 굴뚝상부장식토기, 전달린 토기, 등잔, 솥등 백제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초석 건물지는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능산리사지의 강당(講堂)터, 익산 왕궁리 유적 1호 건물터와 유사한 1동 2실 구조이며, 복편 구름 말단부에 위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 기록에서 알려지지 않은 중요 사찰의 강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서(周書) 백제조(百濟條)에는 '寺塔甚多(절과 탑이 매우 많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찰과 탑이 사비도성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부여읍과 그 인근에는 25개소의 백제 절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도로시설로는 도로와 도로 남쪽의 배수로, 노면의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됐다. 배수로는 원지형을 굴착해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목단, 백제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는 백제 사찰의 강당과 사비도성 시가지의 도로시설 등이 확인되는 획기적인 발굴성과"라며 "앞으로 추진될 부여 구드래 일원의 문화유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백제 건축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효 저술 날낫이 풀어 헤친다

원효 스님의 저술 원문을 읽고 토론하는 강독모임 '원효독회(讀會)'가 출범했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9월 21일 울산대 인문관에서 첫 원효독회를 연데 이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원효 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원효독회는 최근 박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한국연구재단의 '원효전

집 번역과 종합해제' 작업의 일환이다. 원효독회에서는 원효 스님 저술 번역과 함께 다양한 원효 읽기를 시도한다. 21일 첫 강독으로는 원효 스님의 대표저술인 <대승기신론소·별기>가 진행됐다.

참가 희망자는 독회 이메일(twpark@ulsan.ac.kr)로 문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 41호, 윤원철 교수 회갑 특집호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발간하는 <한국선학> 제41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 회갑 기념호로 강은애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구원의 '우리 시대의 선학자-윤원철' 기고문을 비롯해 9편의 논문과 1편의 리뷰가 실렸다.

논문으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조 지눌 사상의 통시적 현재성' △조명제 신라대 교수의 '수선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삼가염송집>'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의 선(禪)의식을 중심으로 본 근대성과 탈근대성' △김진영 동국대

교수의 '월저 도안의 선교관(敎觀)과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道)' △전무규 동국대 교수의 '하택 신희의 선사상과 사법 처수행론에서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비교고찰' △오용석 연세대 교수의 '간화(看話)와 반초(返照)에 대한 일고찰' △김영주 금강대 교수의 '대한불교전대종 관음염송 수행의 실제' △차차석 동명대 교수의 '관음종의 개장 조사 태허의 범통 인식과 그 특징' △김혜련 충북대 교수의 '우익 지옥과 다산 정약용의 탈주학적 <논어> 이해' 등이다. (02)2123-2400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2015년 학술상 공모

올해로 창간 16주년을 맞은 불교평론이 학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불교학을 진흥을 위한 2015학술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간행된 불교학술도서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할 학술도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저술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정을 고취한 저술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저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 저술 △주요 불교문헌의 치밀한 번역과 주석을 시도한 저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금은 500만원이며, 마감은 9월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해당분야 도서 2부와 200자 원고지 10매 가량의 요약문을 제출하면 된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패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패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제7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2015 10. 10 (토) 14:00~17:00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주최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BBS, 부산경찰청, BTN.

특별후원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불교선학회, 주방기구, 제조회사, 엘지, 변호사, 신익철,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 지차소, 연필, 칠지

협찬 | 대동대학교, 뷰티케어개발, KU, 김홍재재단, 우리농협,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참가비 | 무료

대상 | 완주와 가족, 부산 시민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기증 & 후원회원 등

장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참가비 | 무료 (선착순 1,000명 기념품 증정 - 사전접수 우선 증정)

신청기간 | 9월 21일(월) ~ 10월 7일(목)까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및 현장접수 가능) ※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문의 | Tel. 051) 853-0429 / Fax. 051) 853-0439
www.bslista.or.kr / bssangmung@hanmail.net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이 있습니다.